



태풍을 딛고 일군 농심의 가을 수확

태풍을 딛고 일군
농심의 가을 수확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많은 낙과피해가 발생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양양의 가을들녘은
어느새 누런 황금이삭이
만개해 농심을 어루만지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이겨낸
그 인내가 이제 가을걷이의
결실로 이어지며 희망을 전한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최대영

“50년 만에 군부대 주변도로 직선화”

강현면 주민들 “굴곡 도로 교통사고 잦아”...국민권익위, 합의 도출



군부대로 인해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현면 정암리 주변 도로가 50년 만에 직선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3일 강현면사무소에서 박재영 부위원장과 정상철 군수,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신문고를 열고 군부대 차량피해에 따른 도로선형 개선 현장조정 간담회를 가졌다.

권익위는 이날 조정회의에서 강현면 102호선과 군도 1호선이 주변의 102기갑여단과 제13항공단 등 군부대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도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50년 전부터 군부대가 속속 들어서면서 높은 담장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데다, 굴곡까지 심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에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은 군부대의 동의 하에 우리군이 도로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속도경찰서가 안전점검을 통해 선형개선에 나설 예정이어서 50년 만에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게 됐다.

정암리 주민 등 315명이 장갑차와 대형트럭 등 군부대 차

량이 굴곡이 심한 도로를 운행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서게 됐다.

더욱이 하루에도 수차례 군장비가 다니지만,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보도가 없어 최근 10년간 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전락한 실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8월 24일까지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4차례 실시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굴곡도로 선형개선에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강현면 주민들은 이와 관련 “조속히 도로공사가 추진돼 안전한 통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이번 중재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빠른 협의를 통해 도로선형 개선공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수채무 133억 재정자립도 16.3%

지난해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

우리군의 순수 군비상환 채무액은 133억원이며 군민 1인당 실질적인 채무액은 47만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11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예산규모, 재원의 종류, 채무액,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우리군의 2011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2천272억원으로 전년대비 96억원이 증가했으며, 자체수입 584억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1천689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군의 채무는 태풍피해복구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상수도 확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

확충으로 인해 발생한 347억원이며, 국비지원 상환과 실수요자 부담을 제외한 순수 군비상환 채무액은 133억원으로 군민 1인당 실질적인 채무액은 47만6천원인 셈이다.

공유재산은 지난해 토지, 건물 등 1만9,079건에 599억원을 취득하고 259건 144억원을 매각해 현재 공유재산은 4,57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도 최종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3%로 전국평균 51.1%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자체수입에 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5.14%(전국평균 75.9%) 수준이다.

군은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홈페이지 → 자주찾는 정보 → 행정정보 → 재정공개)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자체수입 증대 및 정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성폭력 예방교육

유혜정 속초성폭력상담소장 강의

최근 성폭력 등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지난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유혜정 속초성폭력상담소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해 성매매 예방 등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성폭력 실태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했다.



의 정 소 식

오색케이블카 유치지원특위 본격 활동

우리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열어



우리군의회(의장 김일수)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제182회 임시회를 열고 실과소별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군의회는 지난 8월3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위는 김현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165일간 케이블카 유치지원을 위한 정책 활동에 나선다.

특위는 이달 중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범 군민적인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킨 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재신청 결과를 청취하

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공동 대응도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어 오는 10~12월까지 본격적인 대선을 앞두고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재선정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수 위원장은 “오색케이블카는 설악권과 강원도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야 하는 만큼 이번이 구성된 양양군의회 특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670-2801

양양읍 전선지중화 9월 완료

전주 64개 철거...도시미관 개선



우리군이 추진 중인 양양읍 중심 테마가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오는 9월 최종 완료될 계획인 가운데 도시미관이 한층 개선돼 관광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한국전력공사, KT 등 6개 통신사와 각각 50%씩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37억을 투입, 지난 7월말 양양전통시장 주변과 새한공업사에서 연창리 무지개주유소까지 1.5km 구간의 전주 64주를 철거하고 지중화를 마쳤다.

이에 따라 전선관 지하 매설 공사를 비롯해 변압기, 피뢰기

설치 및 각 가정에 전선을 인입하는 공정도 완료하고 공사 주변 정비에 나서고 있다.

양양읍의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동안 양양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늘어섰던 전선도 모두 사라져 관광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양양시내 중심 테마가로의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9월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가을 단풍철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된다.

▶문의 경제도시미관개발담당670-2160

오색케이블카 상부정류장 1km 이격

우리군, 주변환경 복원 등 후속작업 속도



우리군이 이달 중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시범지역 재신청 계획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완대책 등 후속작업에 속도감을 내고 있다.

군은 현재 도화엔지니어링과 환경성영향평가 보완작업을 추진, 재신청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상부정류장을 기존 관모능선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1km 이격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25일 환경부의 최종 선정에서 현재 상부정류장으로 정한 관모능선이 주변인 대청봉과 직선거리로 230m에 불과하다며 이를 500m 이상 이격

시키라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환경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서 가장 논란이 돼 왔던 주봉과의 직선거리 이격문제가 환경성 논란에서 벗어 나게 됐다는 분석이다.

군은 특히 하부정류장에서 상부정류장에 이르는 지주대를 비롯해 주변지역의 식생대를 재점검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청봉 주변의 탐방로로 인한 훼손실태를 점검해 훼손이 심각한 곳은 복원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셋길도 점검해 훼손원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청봉 표지석 주변이 돌무덤으로 변하는 등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설악산국립공원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국민참여형 캠페인을 벌여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와 군의회의 오색케이블카 유치지원특위가 재신청을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분위기를 확산시키 나가고 있다.

군은 조만간 주민공청회를 열어 오색케이블카 재신청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며 민간전문위원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타당성을 설득해 나가고 있어 재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상철 군수는 "설악권과 강원도의 침체된 관광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연내 오색케이블카 시범지역 재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보완작업에 속도를 내 환경성은 강화하고 경제성도 담보하는 완성도 높은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케이블카담당 670-2530

남대천 하천재생 국토부장관상

송이조각 · 연어생태 친환경 디자인 평가



우리군이 추진해온 남대천의 친환경 공원조성사업이 제4회 국토도시디자인대전 하천재생분야에서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이번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우리군이 출품한 남대천 생태공원조성사업은 기반시설부문 중 하천재생에 많은 도움을 주는 친환경 디자인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남대천은 송이조각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며 쉼터로 자리 잡았고, 연어생태공원도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변모하는 등 생태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대전에서 그동안 침수와 범람을 반복하던 남대천의 재난취약지역을 적극적인 영농보상과 이주를 통해 공원지역과 습지구를 조화롭게 디자인해 녹색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 점을 강조했다.

또 연어생태공원은 우리나라 회귀연어의 80%가 돌아오는 연어의 강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스토리텔링을 도입해 설계부터 반영했으며, 송이조각공원은 전국 최고의 송이산지라는 지역특성을 살려 디자인했다.

군은 향후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지역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도시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도시개발담당 670-2160

산림부산물 재활용 최우수

우리군, 전국 우수사례 선정

우리군이 지역특색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실질적인 과급효과를 보이며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양양읍 내곡리 산14-2번지 일원에 산물처리장을 설치하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내 방치된 부산물을 수집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 부산물로 인해 매년 산불위험이 높고, 폭우시 하천으로 유입돼 피해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감소한데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송이

산지 내에 방치된 산물수거로 생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처럼 수집된 산물을 그동안 톱밥과 화목, 조형물이나 구조물로 활용해 연간 1,500여톤의 톱밥을 생산, 70여 축산농가에 보급했으며, 1,000여톤의 화목(뿔갈)은 독거노인 및 영세농가 120여 가구에 지원하는 등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상태가 양호한 부산물은 송이조각공원과 송이밸리에 설치할 조형물을 만들고 송이체험장 관리시

설과 휴게시설을 짓는 구조물로 활용,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는 송이조각공원은 숲가꾸기 근로자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로 인정받는 등 양양군의 산림재활용 사업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꼽혔다.

우리군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산림청이 지난달 30일 주관한 산림자원분야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결선에 오른 5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연말 기관포상 반영 및 국도비 우선지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문의 산림농지과
산림경영담당 670-2710

핵심리더 2기 성금 전달

우리군 핵심리더 2기 교육생들이 지난 11일 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정상철 군수에게 전달했다. 핵심리더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내도록 운영되고 있다.



올해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향토장학기금 확충 · 군립도서관 건립 추진

우리군이 지역인재 육성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은 올해 안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인재육성 교육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조례제정과 함께 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20억6,000만원이 적립된 향토장학기

금을 출연금과 기탁금 모금을 통해 대대적으로 확충,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고 양양군립도서관 건립과 학사 확보에도 나서는 등 지역교육의 체질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총 25억원을 투입해 중·고교생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문의 자치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SNS 활용 지역홍보 마케팅

소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우리군이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의 고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지역에서 SNS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

해 1단계로 페이스북을 운영한 뒤 효과성을 검토해 2단계로 소셜 웹을 구축,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고객 1만명 확보를 목표로 매월 페이스북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이벤트 행사를 통해 테마여행, 추천여행, 관광명소, 여행정보 등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구

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2단계로 내년 3월부터 페이스북 운영성과를 분석해 소셜 웹 구축 및 우리군 공식 블로그를 개설(도메인 <http://social.yangyang.go.kr>), 양양군의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소셜 웹 방문자가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쉽게 퍼 나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자치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올해 양양송이 풍작 기대...가격 안정세 전망

지난 7일 설악산서 첫 채취
13일 첫 공판...1등급 49만원

지난 7일부터 설악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양송이 채취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는 풍작이 기대 돼 가격도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올해 가을송이는 지난해보다 1주일 빨리 채취됐다.

양양송이판매상들에 따르면 지난 7일 설악산 자락에서 올해 첫 가을송이가 나오기 시작해 점차 현북면 명지리 등 송이산지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일 처음 채취된 양양송이는 소량이었지만, 1등급 가격이 1kg 35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특히 송이채취가 빨라지면서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도 전년보다 4일 이른 지난 13일 첫 송이 공판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하루 4.68kg이 공판됐다.

첫날 공판가는 1등급(1.29kg) 49만원, 2등급(0.44kg) 26만9,000원, 3등급(생장정지품 0.9kg) 20만1,000원, 3등급(개산품 1.13kg) 16만1,000원, 등외품(0.92kg) 1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1등급은 지난해 37만원에 비해 12만원 높게 책정됐으나, 2~3등급은 4만~5만원 낮게 낙찰돼 생



산량이 점차 늘어날 경우, 실제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여름송이가 고온으로 흉작을 보인 반면, 최근 풍부한 강수량과 일조량으로 지온이 내려가는 등 송이균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을송이의 생산량 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추석 연휴가 짧은데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고가의 선물용으로 수요가 감소, 적정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 동북3성의 백두산 송이가 풍작을 이뤄 최근 항공화물을 통해 빠르게 수입되고 품질도 나아져 국내산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양양송이의 가격 안정세를 유도할 전망이다.



사진전문가 / 최대영의 우리고장 돋보기



철광마을 벽화 생동감

양양철광 재생산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철산마을 주민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주민들은 철광 폐광 이후 쇠락의 길기거하던 시택과 주변이 폐허로 방치돼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던 운동 우수마을에 선정되면 상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해 철산마을 문화마을발전을 염원하는 만큼, 이번 벽화그리기가 마을의

한국의학문화원 준공 본격 운영

현북면 도리...현대의학 100년사 한 눈에



우리나라 현대의학 100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학문화원(메디컬 아카이브)이 양양 현북면 도리에 건립돼 의학홍보 및 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

재단법인 한국의학원(이사장 유승흠)은 지난 12일 현북면 도리 9-4번지 현지에서 유승흠 이사장과 정상철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 1,190㎡, 건축면적 430㎡ 지상 3층 규모의 의학문화원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준공했다.

주요시설로는 지상 2층에 의료인의 전당, 아카이브전시실, 아카이브 영상실, 의학전시관을 갖추고 있으며, 3층은 세미나와 연찬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메아리 홀이 마련돼 의료와 사람이 소통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 들어선 의학전시관은 26개 과목에 달하는 현행 의료분류체계에 따른 인체의 이해와 우리 몸 10개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시형태로 설명하고 있어 인체의 이해를 돕고 의료제도의 변천사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학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현대의학 125년사 사료발굴과 선구적인 의학인들의 업적과 족적을 전시, 연간 배출되는 3,300여명의 의대생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코스로 만들어 의학사적 역사명소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현대의학 100년을 개척해온 의사 300명을 기록 정리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한편, 선구적인 의학인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이들의 영상과 유품, 논문 등도 보존 전시할 계획이다.

한국의학원의 의학문화원 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업체인 유한양행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의 장조카 유승흠 연세대 명예교수가 현북면 도리 마을에 거주하면서 한국의학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해 왔다.

한국의학원은 이번에 준공된 의학문화원이 국민의료복지 증진을 비롯해 학술정책 지원, 올바른 건강정보 보급 등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도 관광활성화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기여

우리군, 실사구시 포럼 긍정 평가



우리군이 직원들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창의성 향상을 위해 마련한 '실사구시' 포럼이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창조적 마인드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군수가 주재하는 '양양 실사구시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 상하간의 소통과 배려를 통한 직장내 토론문화의 정착 및 창조적 마인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회째 운영되고 있는 실사구시 포럼은 조직 상하간의 토론문화가 미약하고 직원들이 타인 또는 타부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능률을 저하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계 주관으로 자체적인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포럼운영을 통해 케이블

카 설치, 재정자립도 증대방안, 귀농귀촌, 송이축제 개선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관련담당자(담당 또는 과장)의 연구과제 발표에 이은 토론, 총평(군수 또는 부군수)을 통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실사구시 포럼 참석자들은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 그동안 내부적인 해결시스템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도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실사구시 포럼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 배부, 부서간 연계 협력사업의 기초자료와, 업무개선 및 창의적 사고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오래된 담장에 희망의 벽화를 그려 화제다. 서면 장승리 주민들은 최근 노후화 된 주택의 담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벽화그리기 일을 건다. 강동삼 이장이 중심이 돼 추억의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받으며 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옛 광부들이자, 주민들이 나서서 콩, 들깨, 고추 등을 심어 농촌마을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다. 장승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을 맞잡고 연수시설을 조성, 탄탄한 소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동삼 이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이 풀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고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참가

도내 15개교...특성화 프로그램 홍보



전국 우수 기숙형공립고인 양양고(교장 김형식)가 2012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에 참가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명예를 드높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를 앞두고 양양고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1068개교 중 15개 우수학교에 선정돼 참가하게 됐다.

양양고는 지난 20일~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학교 전시관을 설치한 뒤 그동안의 교육성과와 특성화된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전시 홍보했다.

지난 2010년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된 양

양고는 현산학사 1·2관 11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의 학습능력 향상, 동아리활동, 체력 증진, 진로탐색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차별화된 기숙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생활습관 정착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동아리 프로그램은 스포츠 5개팀, 학습 3개팀, 봉사 1개팀 등 9개팀이 운영되며 자기계발을 주도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어 호응도가 높다.

또 현산문화제, 수산항 요트교실, 학부모와 함께 지역명소 방문 등 지역특성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다.

양양고는 이런 활동에 힘입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생활습관을 통해 학력향상은 물론 창의성과 인성,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 데다, 최근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도 잘 연계돼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식 교장은 "우수 기숙형공립고 선정 계기로 이번에 전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도 참가하게 돼 보람이 크고 앞으로 더욱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명문고로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28. 암탉소리

눈도
코도
없는거
하나 낱구나(낱았구나)

꼬꼬텍 꼬옥
꼬꼬텍
꼬꼬텍 꼬옥 꼬꼬
꼬옥.

미리 마련된 등지에 일상으로 알을 낳아 왔지만 늘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아마도 안전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듯 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등지에 올라앉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경쾌한 모습으로 날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외쳐댁니다.
그야말로 '눈도 코도 없는 것 낱았다'의 알립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인 또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 대단하다고 수선을 떠느냐의 반응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과소평가에서 율조림이 아닌가합니다.
아무튼 닭의 입장이든 사람의 입장이든 그 대단한 광경은 이제 옛 풍경으로 전설로 남을 날도 그리 머지않았다 생각하니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진지함을 남겨야 할이때가 아닌가 하는 교훈적 마음을 포개게 합니다.

제4회 양양군체육회장기 육상대회



제4회 양양군체육회장기 초·중 육상대회가 지난 7일 손양면 인조잔디경기장에

서 열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양양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이번 육상대회는 관내 초·중학교 육상 꿈나무들이 출전해 경기력 향상에 나섰다.

트랙과 필드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대회는 열악한 육상인구 저변 확대와 꿈나무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09년 제1회 대회 이후 육상 꿈나무들의 꾸준한 참가가 이뤄지고 있다.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각 읍면 선수들 출전...노인화합 다져

제6회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10일 손양면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각 읍면 노인회 게이트볼 팀들이 출전해 그동안 꾸준히 익힌 기량을 선보이며 노인화합을 도모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정상철 군수와 김일수 군의회 의장, 이진형 노인회장 등이 참석해 격려하는 한편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낙과피해 농가 돕기 손길 이어져

복숭아는 모두 소진...공무원들 팔아주기 운동

제15호 태풍 불라벤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낙과피해 농가들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8월 29일 피해가 보고되자 곧바로 전 직원을 투입해 낙과 줍기 작업에 나선 뒤 내부 연락망을 통해 낙과 복숭아 팔아주기 운동을 펼쳤다.

또 군부대와 유관기관들도 낙과 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을 찾아 모자란 일손 돕기에 동참하며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현재 복숭아농가들은 피해를 입은 뒤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해 낙과를 사 대부분 소진됐으며, 나머지는 저장한 뒤 줍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담당 670-2369

장승2리 · 영덕리 · 잔교리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추천

우리군은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서면 장승2리와 영덕리, 현북면 잔교리 등 3개 마을을 추천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새농어촌건설운동 4개 마을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3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기업형 마을로 경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마인드를 배가 시킬 계

획이며, 마을운영과 공동수의 사업을 통해 사업능력 배양과 자립경영을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부터 우수마을 시상 제도를 개편해 기존에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5억원의 상사업비를 일시에 지급했으나, 올부터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1단계에 3억원을 균등지급하고 2단계로 사업추진 2년차에 재평가를 실시, 1~3억을 차등지급하게 된다.

강현면 3개 어항 종합개발 본격화

물치 · 후진 · 낙산항...어촌관광활성화 기대

우리군이 관광어항정비를 통해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강현면 권역의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농림수산물부로부터 사업대상지구로 확정돼 2013년까지 국비 21억, 군비 9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물치항을 비롯해 후진항, 낙산항 등 3개 어항에 대한 종합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어업생산 기반시설과 생활환경, 복지·편의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실시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에 들어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전진2리 후진항에 5억의 예산으로 지상 1층, 건축면적

355.4㎡의 수산물 위판장 및 어촌계사무실 신축공사를 지난 6월 착공, 추진 중에 있어 소규모 관광어항으로 변신이 기대된다.

물치항은 기존 978㎡규모의 활어회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한 뒤 방파제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해 어항기능 보강은 물론 관광객들이 어촌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관광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5억원을 들여 낙산항에 90m의 방파제와 후진항에 50m의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 이달 초에 이미 완공해 규모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문의 해양수산과 연안시설담당 670-2746

수확철 콤바인 임대사업 추진

농업기술센터, 22대 순번제로 임대

우리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벼 수확철을 맞아 콤바인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하순부터 대부분의 농가가 벼 수확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콤바인 22대를 농가에 임대하고 벼 베기 능률향상과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콤바인 운전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6~7일까지 이틀간 남대전 양양교 위 공터에서 열린 콤바인 운전교육에는 6개 읍면 50여명이 참가해 콤바인 각 부명칭과 작동기술 및 운전실습,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으며, 수료 후 교육필증을 발급받은 후 콤바인 임대를 신청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보유한 콤바인 22대를 순번제로 농가에 임대할 예정이며, 읍면별 각 1명의 운반인을 채용해 트랙터 6대를 활용, 콤바인을 농가에 운반해주고 점검 관리까지 해줘 농업인들의 작업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70-2337



국비확보 체계적 대응 '사활'

2014년 예산확보 조기 추진

우리군이 내년도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비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2014년 국비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부서별 예산실무자에 대한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내년도 국비 확보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신청한 내년도 국비사업은 모두 1,094억원으로 올해 국비 편성액의 2배에 달하며, 이중 70%인 760억원 규모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재부의 심사단계인 국비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삭감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월 국비대상사업을 발굴해 사업을 신

청하고 전 부서가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군이 국비확보에 매달리는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면서 원활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군이 이에 따라 광특재원과 일반국고사업을 늘리기 위해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부처의 예산편성 한도액이 정해지는 5월 이전에 협의가 완료되도록 전방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은 내년도 국비사업이 일단락되면 곧바로 2014년도 국비사업 확보 활동을 서둘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농특산물 수도권 공략

추석맞이 판매전 잇따라 열어



우리군이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을 타깃으로 하는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상시적인 지역농특산물 판로확보에 나선다.

군은 지난 5~6일과 12~13일 2회에 걸쳐 서울 송파농협 가든파워직거래장터에서 양양에서 생산

되는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실시한 가운데 19~23일까지 나눔 가득 농수산물 서울장터에서 판매활동에 나섰다.

또 15~16일까지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군포시 먹거리 장터에서, 22~23일까지는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를 통해 농특산물 판매에 나섰으며, 25~26일은 군포시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실시했다.

군은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6차례의 농특산물 판매전을 펼쳐 고품질의 특산물을 알리며 상시적인 판로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는 송이주, 송천떡, 오색 허브마을 등 3개 영농조합에서 5개 업체가 참여, 양양의 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담당 670-2703

'금요일은 한우고기 먹는 날'

한우농가 살리기 매주 운영

우리군이 '양양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한우고기 먹는 날'로 정하고 한우농가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군은 구제역 발생 후 미국산 수입과 사료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살리고 위축된 한우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매주 금요일은 한우고기 먹는 날'로 지정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오전 11시 양양군청 광장에서 '매주 금요일은 한우고기 먹는 날' 선포식과 함께 양양시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두캠페인을 벌이며 소비촉진을 유도했다.

군은 이와 함께 실질적인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축산기업조합, 정육점, 농협 하나로마트에 소비자들이 보다 자주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양양군은 한우의 모색(毛色)이 금(金)색과 비슷하다는데서 착안해 금요일을 한우고기 먹는 날로 정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축산위생담당 670-2705



“예찬이를 도와주세요”

양양초교 황예찬 어린이 백혈병 사투



송됐다. 긴급 처방으로 잠시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예찬이의 백혈병 진단에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다.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지내던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앞으로 항암치료를 어떻게 받아낼지 앞이 캄캄해온다고 울먹였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백혈병은 항암치료로 인해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면 투석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찬이는 현재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서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린 뒤 무균실에서 방사선 등 항암치료를 병행하며 병마와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를 한 지 1주일만에 들어간 병원비가 350만원이어서 앞으로 이어질 장기간 치료에 부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양양 서면 거마리가 고향으로 개척교회를 맡고 있는 아버지 황병구 목사는 “불현듯 예찬에게 찾아온 백혈병으로 지금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며 “어떻게든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흐느꼈다. 예찬이 부모는 힘들게 개척교회를 맡고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다음 치료에 들어갈 치료비 마련에 걱정이 태산이다. 양양에서는 예찬이의 백혈병 투병 소식을 접하고 헌혈증 모으기 등 예찬이를 돕기 위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도움 주실 분 연락처 010-7504-5801>

양양초등학교 6학년이 재학 중인 황예찬 어린이가 백혈병에 걸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예찬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은 지난달 24일. 평소 활달하고 모범생이던 예찬이는 두 달 전부터 감기증상이 심해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아 이날 강릉 아산병원을 찾았다. 검진결과 백혈구 수치가 크게 높아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고는 응급차로 서울대 병원으로 급히 후

더욱이 병원에서 백혈병 치료

2012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급~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61-5000)

- 신청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학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② 생활형편 요건 (아래 요건중 한가지만 만족)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
 -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부동산-집, 땅, 산, 건물, 상가 등)이 7,400만원 이하인 가정
 - 직장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집, 땅, 산, 건물, 상가 등)이 7,400만원이하인 가정
- 선발기준 (선발기준에 적합하면 인원 제한없이 전부 지원)
- 장학금 지원내역 (2회 지급 - 10월말, 11월말 지급)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 신청기간 : 2012. 9. 3 ~ 10. 31(10월 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우:200-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1번지 지원업무담당자
 -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상담전화및 인터넷 상담 : 261-5000, 080-749-7171, www.ts2020.kr접속

2013년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신입생모집

- 모집일정 및 원서접수
 - 원서접수기간(방문, 우편) : 2012. 9. 10 ~ 10. 12
 - 면접시험(서류, 면접사심사) : 2012. 10. 15 ~ 10. 19
 - 합격자 발표 : 2012. 10. 23
 - 등록기간 : 2012. 10. 29 ~ 11. 02
 - 개강일자 : 2013. 1. 31 이내
- 응시자격 및 심사내용
 - 응시자격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 단, 영농경력미만자에 대하여 특별전형 응시기회 제공 가능(전공별 정원의 10%이내)
 - ◆ 영농경력미만자에 대한 특별전형기준(전공별 정원의 10%이내)
 - 심사내용
 - 서류심사 : 영농사실 확인 및 품목, 영농 규모, 자기학습계획서 등 심사
 - 면접심사 : 관련분야 전문성, 교육 참여의지 등 심사
 - ※ 가산점항목 : 관련분야 공인자격증 취득 내역 및 표창내역 등

문의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670-2473

2012년 (재)금강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 (재)금강장학회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 공고합니다.
1. 선발인원 : 00명
 2. 신청자격 :
 - 1) 4년제 정규대학 2,3학년 재학생(예능계, 의과 계열 제외)
 - 2) 2011년 및 2012년 1학기 학업성적 평균 B학점(3.0점 이상 4.5만점기준) 이상
 - 3) 부·모(또는 본인)의 원(본)적이나 주민등록지가 강원도인 학생
 - 4) 부·모(또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인 학생
 - 5) 부·모(또는 부양의무자) 연 재산세 납부액 1백만원 이하인 학생
 - 6) 다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금액 받지 않는 학생
 3. 장학금 : 등록금 전액(기성회비+등록금)
 4. 선 발 : 장학선발전형위원회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후 선발
 5. 신청서 접수 및 기일
 - 1) 접수기간 : 2012. 9. 10 ~ 2012. 9. 14 (당일접수분까지)
 - 2) 선발자정보 : 1차서류전형 선발자 2012. 9. 27(예정) 개별 유선통보
 -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접수
 - 4) 접수 및 문의 : (재)금강장학회사무국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7-4 강원도민회관 402호
Tel. 02)778-6430 / Fax. 02)771-4559
6. 제출서류
 - 1) 추천서(재경시·군민회장 지역도민회장 강원도내시장·군수 중 1인)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시·군청) 1부
 - 3)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1부
 - 4)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교) 1부
 - 5) 대학 재학증명서(2012년 8월 이후 발행분 / 대학교) 1부
 - 6) 2011년 및 2012년 1학기 성적증명서(대학교) 1부
 - 7) 2011년도 부·모 (또는 부양의무자) 재산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시,군청) 1부
 - 8) 2011년도 부·모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금액 증명 및 사실증명서(세무서) 각 1부
 - 9) 본인(환경) 소개서 (서식없음) 1부
 - 10)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아르바이트 증명서(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1부
 7. 기타
 - 1) 장학금은 2013년 1학기부터 지급합니다.
 - 2) 제출서류 미제출시 해당부문 서류전형(심사) 시 '0'점 처리합니다.
 - 3) 추천문서는 단체장 추천서로 같음합니다.
- 금강장학회 재단 이사장**

기상과 가을산행

기상청에서는 홈페이지(kma.go.kr)를 통해 설악산의 산악기상예보를 하고 있어, 날씨뿐만 아니라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웹(m.kma.go.kr)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날씨 앱', 일반 휴대폰으로 이용이 가능한 '131 WINC' 기상정보 서비스,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한 자동음성시스템과 131콜센터 등을 통한 전화상담 등도 실시하고 있다.

산을 찾고 즐기려는 사람들은 단풍철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출발시 이와 같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속초기상대 제공]

재난안전지킴이가 됩시다!

국가 재난관리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재난징후(徵候)정보에 대하여 체계적 수집·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위험요소 상시관찰을 생활화하여 재난징후정보 제보를 통해 「안전한국」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 국민참여「재난징후정보 제보」이벤트 실시('12.10.1~11.30.), 세부 사항은 이번 트 중첩 홈페이지 참조

- 징후(徵候)의 개념 : 어떤 일이 생길 기미
- 재난징후정보 관리를 통한 재난사고 예방 사례

○ 서울 구로동 경부선 구로역 인근 철로변 블록담장이 기울어져 있어 붕괴될 시 철도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재난징후정보 분석회의를 통해 '11년 5월 23일 철로접근 차단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서울시, 철도시설공단 및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에 통보하여 구로역 철로변 담장을 6월 25일 철거 완료하여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 전 - 담장전도]



[조치 후 - 담장철거]

이제는 119에서 전문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추석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병원,약국) 안내
-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 ◇ 각종 질병에 대한 질병상담
- ◇ 병·의원 약국 안내
- ◇ 전문 의료인 24시간 상주 및 상담

2012년 양양군 지방재정공시

양양군 재정공시 제1호(2012. 8. 31.)

- 우리 군의 '11년도 살림규모는 2,272억원으로, 전년대비 9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584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70천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 등)은 1,689억원입니다.
- 각종 재해복구사업, 09년 재정부족분, 상수도 확장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군의 채무는 347억원이며, 군민 1인당 채무액은 1,242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1년도에 토지, 건물 등 19,079건(599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건물 등 259건(14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57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의 '11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3,755억원) 보다 1,48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105억원)보다 521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637억원)보다 948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76억원)보다 171억원 많으나, 국비지원 상환 및 실수요자 부담을 제외한 순수군비 상환 채무액은 43억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6,632억원)과 비교하여 2,053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 군의 '11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31%이며(전국 평균 51.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14%(전국 평균 75.9%)입니다.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1년도 최종예산기준
 -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살림살이 규모는 동종단체에 비해 규모는 적으며, 국내 경기 여건 침체로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세수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살림규모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의존재원(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지방채 및 예치금의 실제 수납액 기준임.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 수입(10,345백만원)을 인구수(27,942명/'11. 12월말 기준)로 나눈 값임.
 군민 1인당 채무액 : 총 채무액 347억원에는 국비지원 상환, 실수요자 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순수군비 상환채무액은 133억원으로 군민 1인당 실제채무액은 476천원임.
 ※ '12년도 재정공시 작성 데이터는 '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yangyang.go.kr)
 홈페이지 → 자주찾는 정보 → 행정정보 → 재정공개 클릭

양 양 군 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인계업무 시행 안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율을 부여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도록「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재정공포(2011.4.5)되어 시행(2012.1.6)됩니다

□ 판매업자 의무사항

- 회수의무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함
- 인계의무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제조·수입업자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 하여 인계하여야 함

문의 :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팀 ☎ 240-9542 김성한

전기안전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시행

국민 여러분의 곁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주거용 전기설비의 돌발적인 고장·정전에 대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긴급출동고충처리(SPEED-CALL)** 서비스 업무를 시행합니다.

- ◇ 전기사용 중 **고장·정전 등 돌발사고시 곧바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십시오.
24시간 즉시 출동·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 연락처 : 지역번호 관계없이 ☎ 1588-7500번

-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의 주거용 설비(주택),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료입니다.
 ※ 일반고객이 요청하여 출동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직장가입자」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 배경

- 금융자산가, 빌딩·상가 소유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와 일반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제기될 뿐 아니라, 재력가들이 위장취업을 통하여 직장자격을 허위취득 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이런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개정('11.12.31.)되어, 2012년 9월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직장가입자 **“보수의 종합소득”**신규 부과
 - 연 7,200만원(월 600만원) 초과소득에 보험료 부과 (약 42천명)

$$\begin{aligned} & \cdot \text{가입자 보험료} = (\text{보수월액} \times \text{보험료율} \times 50\%) \\ & \quad + (\text{보수외 소득} \times \text{보험료율} \times 50\%) \\ & \text{※ 보수외소득 :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 \text{※ 사용자부담 보험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임금소득에만 부과} \end{aligned}$$

□ 시행월 : 2012. 9.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서민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 설립목적

- 강원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은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

■ 신용보증대상기업

- 강원도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취약계층 창업 및 운전자금[긴급생계자금포함] 지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 구분 | 지 원 내 용 |
|--------|--|
| 대 상 | ○ 취약계층의 창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저소득사업자 ○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 운영 중인 것 ○ 창업자금 신청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함. |
| 대출한도 | ○ 창업자금 2천만원, 운전자금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
| 대출금리 | ○ 최고 7% 내외 (변동금리) |
| 보증기간 | ○ 5년 이내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 보증료율 | ○ 0.8% (전국 최저) |
| 기본준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
| 진행절차 | 1. 신용보증신청 2. 상담 및 보증심사 3. 보증서 발급 4.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 대출금융기관 |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

- 1)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 37번지 기업은행 4층
- 2) 연락처 : Tel) 638-9780~1 / Fax) 638-9783